



조간 제 8143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음력 6월 25일)

전남광주, 반도체 지원할 공공기관 유치 나선다

40개서 과학기술연구원·수자원조사기술원 등 5개 추가
유치추진단 100명 규모 확대 개편...2차 이전 발표 대응
산업경쟁력·정주여건 대전환 추진 등 3대 핵심전략 집중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가 유치 대상 기
관을 대폭 확대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
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 기관을 유치

할 계획이었으나 통합 이후 광주 군공항
일원에 800조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계획
이 발표됨에 따라 반도체와 AI 관련 공
기업 5개를 추가해 유치활동에 나섰다.
6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르면 9월, 늦어도 올

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350여개의 개별
이전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
려졌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 이전, 전남도는 유
치추진단을 구성하고 광주시와 함께 에너
지·인공지능(AI)·문화예술·사회서비스
등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설정했다.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지역난방
공사·한국환경공단 등 4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발굴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
터 부지로 확정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필요
성이 커졌고, 통합특별시는 반도체와 AI
관련 공기업 5개를 추가했다.
반도체 관련 이전 추진 공공기관은 과학
기술연구원, 수자원조사기술원,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4개
와 민형배 시장이 강조한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다.
기존에 유치를 추진했던 어촌어항공
단은 해수부 연관기관으로 부산 이전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
전5사 통합본사를 이전 유치 대상에 반
영했다.
광주특별시는 또 공공기관유치추진단
규모를 7개 분과 70명에서 7개 분과 100명
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8~9월 막판 홍보
총공세에 나서, 수도권 주요 거점과 SNS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의 압도적인 산업경쟁력과 공공기관의 이
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대전환'을 추진

한다. 정주여건을 유치 성패의 핵심 열쇠
이자 타협할 수 없는 선결 조건으로 보고
기존 현황을 냉철히 진단해 이전기관 임직
원과 가족들이 체감할 실질적이고 세심한
생활 인프라 대책을 마련한다.
320만 통합특별시민의 역량 결집에 나
서, 시민들의 유치 열망을 중앙정부에 전
달하기 위해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가
칭)'를 조속히 발족해 범시민 차원의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내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에 백승주·윤난실 지명 '시민추천제 적용'

이달 말 인사청문 후 임명
민 시장 "시민 선택 존중"



백승주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지방직
정무부시장 후보에 백승주 전 민주연
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
실 제도개혁비서관이 낙선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
시장은 6일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일자리·경제·
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 지방직 부시
장 후보에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
장을,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
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지방직
부시장 후보에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
실 제도개혁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고 발표했다.

백승주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립순천대학
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재정
부 기획조정실장, 재정혁신국장 등 중
앙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기획과
행정 조정 능력을 쌓았다. 통합특별시
의 미래 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산업과 일자리의 새로운 도약
을 뒷받침할 책임자로 평가받았다.

윤난실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강진 출신으로 제4대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

서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
신자치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자
치분권과 제도혁신을 이끌었다. 시민
주권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
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
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책임자
로 인정받았다.

이번 정무부시장 선발은 시민이 후
보 검증과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추천제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배심위원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분야별 후보 순위가 결정됐으며,
통합특별시는 각 분야 상위 후보 3명
씩을 민형배 시장에게 추천했다. 민 시
장은 이 가운데 백 전 부원장과 윤 전
비서관을 최종 후보로 선택했다.

통합특별시는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절차
를 마친 뒤 이달 말 지방직 정무부시장
으로 공식 임명된다. ▶2면서 계속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폭염 속 양산 행렬 전남광주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빨라질 듯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 시 국내선, 이전 불가피
무안공항 재개항·접근성 제고 교통망 확충 과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시점도 계획보다 앞당
겨질 전망이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광
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예
상보다 늦어지는 사이 광주 군공항 부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
설이 들어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떠오
르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
기 위해 광주 군공항 전체 이전을 기다리
지 않고 전투비행단과 교육·훈련 기능 등
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 부지를 단계
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국방부 주도로 검
토하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활주로와 관제
·안전시설을 일체화 사용하기 때문에 군
공항 기능이 분산되거나 중단되면 현재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
결국 군공항 분산배치가 시작되는 시점
에 맞춰 민간공항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 기준은 호남고속
철도 개통 시점이 아니라 군공항 분산배치
와 반도체 부지 확보 일정으로 바뀌는 모
양새다.

정부가 무안공항 재개항을 서두르는 것
도 민간공항 조기 이전을 뒷받침하는 흐름
이다.
무안공항이 정상 운영을 재개하고 군공
항 분산배치 계획까지 확정되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도 당초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기다리지 않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정상 운영 재개
와 함께 공항버스 증편, 직행노선 신설 등
광주권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
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솔

시카보다 4배* 강한
썩시카™ 진정한 힘으로
속건조로 생긴 수부지 트러블** 종결

* 자사 병용주름물 대비 진정 효능, in-vitro 시험 결과
*** 건조, 거칠어짐,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붉은기

